



2022. 6. 14 (화)

운송 Analyst 배기연

RA 오정하

02. 6454-4879

02. 6454-4873

kiyeon.bae@meritz.co.kr

jungha.oh@meritz.co.kr

국내의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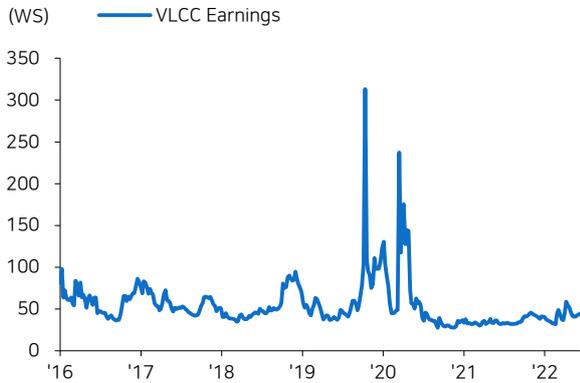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2,260.0p(-60.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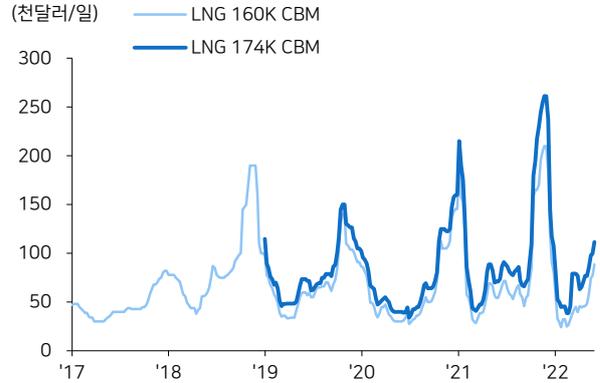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4,233.3(+25.3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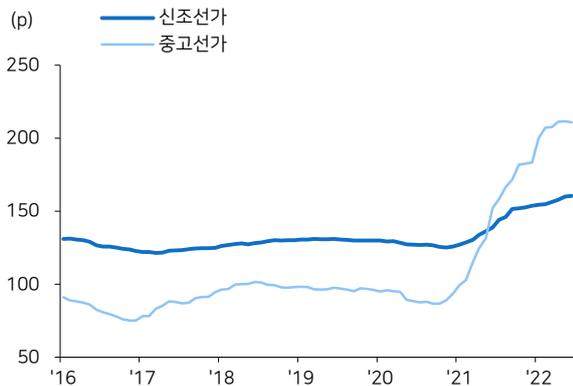
VLCC Spot Rate 44.8p(+1.2p WoW)



LNG Spot 운임 97.5p(+9.0p WoW)  
120.0p(+8.5p WoW)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60.4p(+0.3p WoW)  
210.9p(-0.7p WoW)



항공시장 지표 245.4p(-4.1p DoD)  
87.6p(-4.0p DoD)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 진에어, 대한항공 자회사로... "LCC 통합 대비"

한진칼이 자회사 진에어 지분 전량을 다른 자회사인 대한항공에 매각한다고 보도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이후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합쳐진 통합 LCC를 대한항공 산하에 두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알려짐. 진에어 주식 약 2,866만주로 지분율 54.91%에 달하는 규모임. (조선Biz)

### 산은·수은, 3000억 규모 대한항공 전환사채 주식 전환...7월14일 상장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이 3,000억원규모 대한항공의 영구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다고 보도됨. 주당 전환가액은 14,706원으로 총 주식 수는 약 2,039만주임. 전환 주식들은 7월 14일 상장될 예정임. (뉴스1)

### 팬오션, 2,716억 규모 LNG선 1척 건조 결정

팬오션이 LNG운송사업 확대를 위해 LNG선 1척 건조를 위한 시설투자를 하기로 했다고 공시함. 투자금은 2,716억만원으로 투자금은 자기자본의 7.6% 규모로 알려짐. (뉴시스)

### LNG선 아마겟돈

LNG선 건조슬롯도 부족하지만 조선업체들이 일부 밀접한 고객사들에만 슬롯을 제공해 LNG선주들이 실망한 상황으로 보도됨. 2022년 6월 현재 발주해도 가장 빠른 납기가 2026년말로 알려짐. 현재 LNG생산 설비 건설 인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LNG프로젝트만 해도 70~90척 이상 필요할 것으로 추정됨. LNG발주 병목현상을 초래한 것은 QatarEnergy임. 한편, 한 브로커는 카타르발주가 끝나면 선주들이 중국 조선업체에 발주할 수도 있다고 언급함. 실제로 중국 2개 업체가 LNG선 수주에 성공함. (선박뉴스)

### JP Morgan reverses out of four planned Qatari LNG carrier newbuildings

후판 가격 등 원가 상승 압력을 견디지 못한 일본 조선업체들이 선가를 대폭 올릴 계획으로 보도됨. 일본 주력 선종인 벌크선의 경우 QatarEnergy발 LNG선의 선주였던 JP모건이 4척 발주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보도됨. JP모건은 삼성중공업에 발주된 LNG선 4척의 선주로 추정된 바 있음. 취소하게 된 이유는 알려지지 않음. (Tradewinds)

### 'Big and strategic': Tanzania LNG targets 2025 project sanction after Shell and Equinor sign key deal

연기되었던 탄자니아 LNG 프로젝트가 주말간 주요 참여업체인 Shell과 Equinor가 정부와의 계약에 서명하며 재개되었다고 보도됨. 탄자니아 프로젝트는 블록 1, 2, 4에 매장된 가스 40조큐빅피트를 연간 1,000만톤의 LNG로 생산하려는 프로젝트임.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금 추세로는 계약을 2022년 12월까지 완료하고, 2025년 최종 투자결정이 되길 희망한다고 언급함. 프로젝트 개시 후 첫 LNG 수출은 2030년쯤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됨. (Upstream)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